

11. 터키에 새로운 유기농 시장 오픈

두바이지사

주요내용

▶ 새로운 유기농 전통시장 이스탄불에 오픈

- 이스탄불의 에유클탄(Eyüpsultan) 지역에 선보인 곱튀르크 유기농 시장(Göktürk Organik Pazarı)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곱튀르크 유기농 시장은 건강한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오픈되었으며 터키 전역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올리브유, 호두, 여러 가지 채소, 치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전통시장 형태로 유기농 시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개장한다.
- 곱튀르크 유기농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비료, 농법, 가공 등 모든 생산과정이 유기농 인증 절차에 포함되어 기존 통과 시 유기농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는 100% 유기농 제품이다.

▶ 터키의 유기농 시장 현황

- 2015년 터키의 유기농식품 및 음료시장 규모는 97.9백만 달러로 전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유기농식품 및 음료 1인당 지출액은 1.3달러로 전세계 33위에 해당한다.
- 유기농 식품의 주요 소비자는 도시의 고소득층이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전자 변형(GMO)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유기농식품과 음료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다. 유기농식품과 음료의 소비규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유기농 치즈, 올리브오일, 신선과일 및 채소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판매량 기준 터키의 가장 큰 유기농 식품회사는 Yasar Holding AS로 총 매출의 26.2%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City Farm Organik Urunler과 Hipp GmbH & Co Vertrieb KG가 있다.

▶ 터키의 유기농 식품 수출도 증가세

- 터키의 에게(Ege) 수출 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2017년 터키의 유기농 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8,700만 달러이고 같은 기간 해외 판매량은 10% 증가한 21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 씨 없는 건포도, 건무화과, 건살구, 헤이즐넛이 가장 많은 수출량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 터키의 유기농식품 수출목표액은 25억 달러이다. 터키의 유기농식품 주요 수출국 중 독일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미국, 프랑스 순이다.

* 참고자료 :

- Global Organic trade guide - Turkey
- Gıda hattı, 「İstanbul'da yeni bir organik pazar açıldı!」(2018.1.12.)
- TRT haber, 「turkiyenin organik gıda ihracati arttı」(2018.1.22.)